

# 번역가의 책무: 한국문학 영어 번역의 주체

이형진\*

숙명여자대학교 영문학부\*  
[jinlee@sookmyung.ac.kr](mailto:jinlee@sookmyung.ac.kr)

## 1. 들어가는 말

본 발표의 제목에 사용된 '번역가의 책무'라는 표현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1923년 기념비적인 에세이 "The Translator's Task"에서 유래했는데, '순수 언어'에 근거한 벤야민의 번역론이 "원언어의 의미작용을 더 근원적인 것이나 더 우월한 것으로 설정하지도 않고, 번역 행위를 자기중심적 환원의 논리와도 철저히 분리시킴으로써, 번역을 제3의 창조에 가까운 것으로 설명한다"(윤조원, 221)는 점에 기반해서, 본 발표에서 사용하는 '번역가의 책무'는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을 담당하고 있는 번역가의 역할에 대한 조금은 일반론적이면서 본질적인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1922년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James S. Gale)이 한국문학 작품 중에서 최초로 김만중의 『구문몽』을 영어로 번역한 이후로 지난 100여 년의 한국문학 영어 번역사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은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한국 밖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적인 성과는 단순히 베스트셀러나 수상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문학번역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착어권 독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수용의 맥락에 위치한다. 문학번역의 근본적인 책무성에 초점을 맞추는 본 연구는 한국문학 영어 번역과 관련해서 반복적인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는 한국문학 영어 번역의 주체인 번역가들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출간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재미교포 2세 번역가 김지영(Chi-young Kim)의 번역을 통해 2011년 미국 크노프(Knopf) 출판사에서 *Please Look After Mom*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크노프 출판사의 담당 편집장 로빈 데서(Robbin Desser)에 따르면, 신경숙 소설 영어 번역서는 초판 10만 부 인쇄 이후 단지 6개월 만에 총 9쇄가 나왔고, 전자책만 3만 부 이상 판매되었는데, 20년 넘는 자신의 편집자 경력에서 처음 겪어보는 경이로운 현상이었다고 털어놓았다(이형진 2011, 309). 결과적으로,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은 지금까지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한국문학 영어 번역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2007년 출간된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영국 출신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의 번역을 통해 2015년 영국 포르토벨로(Portobello) 출판사에서 출판된 이후 엄청난 호평을 받으며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은 문학 분야에서 '노벨문학상'(Nobel in Literature)과 '콩쿠르상'(Prix Goncourt)에 이어 3대 문학상으로도 불리는데, 지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외에서 한국문학의 번역서에 수여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상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의 영어 번역을 각각 책임졌던 번역가 김지영과 데보라 스미스는 지금까지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 중에서 가장 거센 오역 논란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한국어를 독학으로 6년밖에 배우지 않았던 스미스는 한국어 실력도 제대로 못 갖춘 채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했다는 신랄한 비난과 비아냥, 심지어는 인격적인 모독에까지 직면해야 했다.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1세대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가들에게는 근본적인 외국어 역량과 문학적 감각의 부족, 자기만족적인 국내 출판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난이 쏟아졌고, 김지영이나 데보라 스미스 같은 2세대 한국문학 영어 번역가들에게는 아무리 영어권 독자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호평을 받더라도 번역의 생략과 변형, 오류에만 치중해서 비난을 쏟아부었다면,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과연 우리는 한국문학 영어 번역가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일 것이다. 그런 질문의 고민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번역가의 책무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과 이로 인한 야만성이 지금 활동하는 번역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번역가의 길을 꿈꾸는 모두에게 자신들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포기하도록 하고,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벽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무조건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문화는 전략이 아니라 그냥 위협이자 폭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발표는 한국문학 영어 번역가의 현실적인 역할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고민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한국문학 영어 번역가의 책무를 함께 인식하고 쌓아가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 2. 한국문학 영어 번역가의 책무

미국 스포츠 역사에서 전설적인 선수로 기록되는 프로야구 선수 디온 샌더스(Deion Sanders)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는 메이저리그(MLB)에서 활동하면서 메이저리그의 시즌 결승전인 월드시리즈에 2번이나 출전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기간인 1989년부터 2005년까지는 미식축구(NFL) 선수로도 활동하며 미식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의 우승컵까지 2번이나 거머쥐면서 역사상 프로야구의 월드시리즈와 프로미식축구의 슈퍼볼에 모두 출전한 유일무이한 전설적인 선수로 남았는데, 대부분의 선수 활동기간 동안 야구와 미식축구 두 종목 시합에 겹치기 출전하는 초현실적인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현재 미국 프로야구팀 'LA 에인절스'에서 활동하는 일본 출신의 오타니 쇼헤이(Ohtani Shohei) 선수는 타자로서 올 시즌 홈런왕 후보로 손꼽히는 동시에, 투수로서는 '트리플 100'(100이닝-100탈삼진-100안타)의 대기록을 미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131년 만에 달성하면서 진짜 '만화를 찢고 나온 남자'라는 별명을 만화 주인공처럼 입증하는 중이다.

비슷한 가치관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언어와 문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언어와 문화에 원어민급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문학 번역가는 하나 이상의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샌더스나 쇼헤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라면 범접하기 어려운 수준의 역량을 겸비한 사람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가가 출발어와 도착어 양쪽으로부터 끊임없이 의심받고 공격받는 오랜 역사적 현실은 아마 샌더스나 쇼헤이와는 달리 번역가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완전히 소속될 수 있으며, 소속되는 순간 다른 한쪽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포기한 다른 한쪽을 배신하고 오히려 파괴할 수도 있는 역량을 가진다는 잠재적 경계심이나 적대감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마치 멕시코 역사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린체'라는 서사적 여성 캐릭터의 경우처럼, "스페인에서 온 정복자 코르테스는 자신의 말을 통역할 사람이 필요했고, 젊고 영리한

말린체는 번역자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후에 코르테스의 연인이 되어버린 말린체는 결국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로 고착화되고 오염되기 쉬운 존재로 이미지화되면서 가부장적 상상력의 기초를 제공해왔다”(김현미, 59-60)라는 잠재적으로 이중적인 담론은 결국 적과 아군 사이에서 늘 의심받는 번역가의 숙명과 중첩되어 버린다. 아는 마치, 최근 아프카니스탄에서 벌어진 일련의 연합군 철수 과정에서, 그동안 아프카니스탄에서 연합군을 수행하면서 활동했던 아프칸 출신의 통번역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연합군의 조력자인지, 탈레반과 내통한 스파이인지를 거짓말탐지기까지 거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검증받아야 하는 운명에 놓였던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2월 우리나라 영화로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같은 해 1월에 수상한 미국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으로 언급한 “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Once you overcome the one-inch tall barriers of subtitles, you will be introduced to so many more amazing films.)(JTBC뉴스, 2020년 1월 6일)라는 표현은, 바꾸어 말하면, 1인치 자막의 장벽조차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영화는 외국 관객들과 소통할 기회조차 아예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맥락의 반증이기도 하다. 그 1인치 자막의 존재 유무는 비록 1인치라 할지라도 영화의 존재 가치나 생명력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자막이 없는 영화는 해당 언어권 밖에서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만큼 번역의 역할은 어떤 측면에서는 결코 선택적이거나 부분적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전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번역가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유하고 가치 있는 영역으로 남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번역가의 성공적인 역할의 가치는 단순히 번역가가 만들어낸 번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나 판매 부수, 관객 수, 클릭 수 증가에만 머물지 않고,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문화적 확장성과 파급력을 가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번역을 통해 특정 언어의 문학작품이나 영화, 노래를 좋아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해당 작품이나 영화, 노래에 대한 관심에만 그치지 않고, 해당 작품의 작가나 영화의 감독, 노래를 부른 가수의 또 다른 작품이나 영화, 노래를 찾게 되고, 그 같은 관심과 애정은 해당 작가나 감독, 가수의 울타리 밖의 다른 작가나 감독, 가수에게로 향하는 잠재적 확장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언어 자체에 대한 익숙함과 관심, 동기부여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는 해당 언어를 학습하는 기회를 찾거나 해당 언어에 대한 언어적 역량을 쌓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가발전의 가능성이 된다. 이 같은 문화 수용 과정은 궁극적으로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이 해외에서 한국어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원동력 중에 하나라는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한국문학 영어 번역가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이나 국수적인 평가절하는 이들 영어 번역가의 구체적인 역량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문화적 방어 기제의 심리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문학 영어 번역가의 주요 역할을 보다 실증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한국문학 영어 번역가의 책무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10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한국문학 영어 번역가에 대한 평가도 이 같은 다양한 맥락과 역할에 근거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한국문학 영어 번역가의 특별한 역량과 총체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자칫 자신의 무지함이 번역가를 향한 왜곡된 비난의 근거와 무기가 되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첫째, 원본 텍스트인 한국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해 역량이다. 문학 텍스트의 번역은 단순히 언어적 치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작가의 문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작품의 주제 의식을 구축해가는 글의 흐름과 톤에 대한 이해와 감각이 중요하다. 이 같은 분석적, 비평적 역량은 일반적으로 문학평론가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원본 텍스트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작가와의 소통 역량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번역가와 작가의 관계는 서로에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동료 의식의 차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가의 작품을 다른 사람이 다른 언어로 재창조한다는 점에서 경계심도 혼재하기 때문에 미묘하고 다층위적인 측면이 있는데, 번역가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애정과 헌신이 전제되어야만 작가와 작품을 효과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둘째, 번역 텍스트의 완성도이다. 두 말할 나위 없이 번역가의 역량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번역 텍스트이다. 원본 텍스트의 특징과 고유한 가치를 다른 언어로 가장 효과적으로 재현해냄으로써 번역 독자들과 접점을 만들어내는 역량은, 단순히 번역 독자들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결국 번역가가 해당 언어로 작품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언어적, 문학적 역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상적으로는 번역가는 해당 언어권에서 해당 언어로 작품 활동도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수준의 창작 역량이 필요하다.

셋째, 번역만큼이나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번역출판을 위한 출판 제안서를 준비해서 현지 에이전트나 출판사에 보내고 소통하는 역할이다. 대부분의 해외 번역출판 성공 여부가 이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번역가는 작가와 작품 및 번역가의 역량 소개뿐만 아니라, 번역서의 가치와 대상 독자층 분석, 현지 대학의 동아시아 문학 교과목에서 교재로서의 활용 가능성, 작품의 홍보 전략,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해서 에이전트나 출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성공적인 출판 제안서 작성 역량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넷째, 번역은 결코 번역가 혼자만의 역량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은 영어권 출판 시장으로 진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한국문학 작품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영어권 출판 시장에 도전하는 수많은 비영어권 문학 작품들의 영어 번역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판사나 편집자의 판단과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한다. 그런 상황에서 현지 출판사나 편집자와 소통하는 역할은 언어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절대로 작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번역가의 몫으로 남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영어권 출판사나 편집자에게 원작의 특징과 고유한 가치를 설명하고 그들의 다양한 편집과 수정 요구사항에 대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을 설득하거나 때로는 작가를 설득하는 조율 과정은 결국 번역가의 역할이다.

다섯째, 출판 이후 해당 작품이 해외 독자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는지를 파악하고 추적하는 역할도 결국 번역가의 어깨 위에 놓인다.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서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북리뷰 사이트에 실리는 독자들의 후기, 인플루언서들의 SNS, 판매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작가와 소통하는 역할도 번역가에게 요구된다. 즉, 해외 출판의 경우, 번역으로만 번역가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역가는 출판 이후의 상황에 대한 상당한 매니지먼트 역할도 필요하며, 이 같은 역할은 이후에 번역출판을 위한 작가의 새로운 작품 선정 과정에서도 시장 수요 분석에 기반한 번역가의 분석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가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로 남는다.

여섯째, 번역 텍스트가 운이 좋게 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외 언론의 북리뷰 대상으로 주목받게 되는데, 이 경우 번역가는 해외 언론의 북리뷰 기자나 편집자와 이메일 인터뷰나 전화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 현지에서 작가와 작품에 대해 가장 열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번역가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곱째, 번역 텍스트가 해외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대중적 인기를 거두게 되면 작가와 번역가는 해외 북콘서트나 해외 독자들과의 만남 행사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기회가 생긴다. 물론 작가를 위한 통역이 배석하지만, 통역을 통하지 않고 현지 언론이나 독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번역가에게도 상당한 관심과 질문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종종 번역가는 자신이 이해하는 작품의 주제나 가치를 해당 언어로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비공식적 자리일수록 통역이 배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번역가가 작가를 통역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도 감안하면 번역가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이 번역한 한국 작품을 여러 미국 대학과 현지 문화단체를 방문하면서 소개하고, 작품 낭독회에 참여해서 독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브루스 풀턴 교수의 사례는(김자경, 52) 한국문학 영어 번역가가 현지 출판계와 잠재적 독자층과의 소통을 위해 어느 위치에 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여덟째, 작가와 작품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항상 작가의 다음 작품이나 새로운 작품 구상에 대한 관심과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이 같은 질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번역가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번역가는 현지 독자들과 언론들이 작가의 새로운 작품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아홉째, 해외에서 주목받는 한국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은 자연스럽게 번역가 개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번역가가 되었는지, 어떤 학문적 배경을 쌓아서 번역가가 되었는지, 어떤 계기로 작가의 작품을 접하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어떻게 하면 번역가처럼 뛰어난 번역가가 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결국 해당 번역가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미래의 번역가의 길을 선택하는 동기부여도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번역가는 자신을 홍보 수단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문학을 좋아하는 해외 독자층의 확장뿐만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현지의 신진 번역가를 발굴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도 번역가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열째, 모든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가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권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번역가라고 한다면, 번역 텍스트를 한국문학이나 동아시아문학 수업 시간에 교재로 소개하거나 다루면서 현지 학생들이 접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가와 작품의 인지도 확산에 기여하거나, 번역 텍스트를 연구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학술논문을 완성해서 학술 대회나 학술지에 발표하는 기회를 만들어 작가와 번역 텍스트를 학술 연구 대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함으로써 작가와 현지 학계 사이의 학술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 3. 한국문학 영어 번역가를 위한 변명

이 발표의 제목처럼 한국문학 영어 번역의 주체는 결국 번역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의 역할을 존중한다면 이에 수반되는 우리의 책무감은 번역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앞서

번역가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어야 한다. 하지만 번역과 번역가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넘쳐 나지만, 번역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만 보아도 번역가는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특히, 현직 대학교수들도 많이 포진하고 있는 외국 문학의 한국어 번역 분야와는 달리,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 영역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번역가는 외국인이거나 젊은 프리랜서 번역가들이라는 점에서 번역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의 부재로 인해 결국 약자의 위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학술 대회에 발표되거나 학술지에 게재되는 현직 대학교수들의 논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같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부터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에 재직하지 않는 김지영이나 데보라 스미스 같은 프리랜서 번역가들에게는 투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한국 소설의 영어 번역 일선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동아시아학과의 브루스 풀턴(Bruce Fulton) 교수/번역가나 한국 시의 영어 번역 관련 대표적인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과의 데이비드 맥캔(David McCann) 교수/번역가의 영어 번역에 대해서는 국내 학자들이 그 어떤 번역 논란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문학 영어 번역가를 위한 변명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외국 문학의 한국어 번역에서 발견되는 무수한 번역 오류나 심지어는 표절번역과 같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번역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에 대해서는 사소한 생략이나 오류만 가지고도 신랄한 공격과 비난을 퍼붓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이미 해외 독자와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수상까지 하는 번역에 대해서, 마치 수색영장을 받아 범죄자를 다루듯이 번역에서 글의 흐름과 무관할 수 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논란이 되는 번역가에 대한 혹독한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해당 작품의 번역은 해외 독자들의 호평을 받을만한 가치가 없으며, 이 번역에 근거한 수상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메시지 말고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 의도가 진정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같은 범죄자 취조 방식의 검증이 과연 더 나은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과 더 훌륭한 번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건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한국문학 영어 번역가에 대한 일종의 편견과 차별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번역가 말고도 작가에게도 이 같이 동일한 범죄자 취조 방식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검증하는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가 아닐까?

둘째, 아무리 뛰어난 테니스(tennis)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유사한 종목인 탁구(table tennis) 선수를 지도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아무리 외국 문학의 한국어 번역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과연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의 평가자로서의 자격도 갖추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한 번도 한국문학을 영어로 번역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 영어로 한 페이지의 문학 텍스트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어권 독자들이 읽을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의 완성도를 평가하고, 검증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문화적 기득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평가자로서의 객관적 자격이나 역량이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이 평가받아야 하는 현실의 모순에 대한 상식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마치 데보라 스미스가 영문학 소설의 한국어 번역을 평가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독자들이 문학 텍스트를 읽고 나서 감동을 받고 작가와 작품을 기억하는 방식은 결코 모든 페이지의 모든 문단과 문장을 기억해서가 아니다. 원작에도 오류가 존재할 수 있고, 원작에도 지루한 문장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원작에도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지만, 독자들이 원작을 기억하는 방식은 결국 작품의 뛰어난 주제 의식과 그 주제 의식을 풀어가는 작가 특유의 서사 방식과 흐름,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힘이다. 만약 원작의 사소한 오타자나 군데군데 어색함이나 지루함이 이 같은 주제 의식의 기억이나 서사적 흐름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번역 비평에서도 작품의 흐름이나 주제 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오류나 생략 등에 대한 집착은 결국 번역 평가자가 원작의 주제 의식이나 서사적 흐름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는 부메랑 효과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원작은 무조건 완벽하다는 전제를 세우는 순간, 이미 번역 비평은 지극히 권력적이고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교조주의적 공격 무기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번역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타자의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인내, 소통에 기반한다. 그 가치를 포기한다면, 그리스 정복 후에 그리스 출신의 학자들을 노예번역가로, 노예가정교사로 활용했던 로마시대가 어찌면 번역가에 대한 시선은 더 인간적이고 솔직했을지도 모른다.

#### 4. 한국문학 영어 번역가의 존재 이유

작가와 번역가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작가는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도 작가의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번역가는 일반적으로 30~40년으로 간주되는 번역 텍스트의 생명력이 소멸하는 시간이 되면 다른 번역가의 새로운 번역 텍스트로 대체되는 운명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셰익스피어의 이름은 5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셰익스피어의 원본 텍스트를 50년 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 텍스트는 아마 오늘날 독자들의 관심 밖에 놓이면서 이미 새로운 한국어 번역 텍스트로 대체되었는다는 점에서, 번역 텍스트로서의 생명력은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유효기간이 소멸되기 전까지 기대되는 번역 텍스트의 역할은 단순명료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번역 독자들과의 시대적 소통이다. 번역의 유효기간 동안 번역 독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번역 텍스트는 그 존재가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번역 텍스트가 원본 텍스트를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하느냐의 문제와 번역 텍스트가 번역 독자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통하느냐의 문제 사이에서의 무게 추의 방향은 의외로 간단해질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가치 모두 번역이 본질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이상적인 목표라는 점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 현장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두 가지 중 우선순위는 번역 독자와의 소통이어야 한다.

소설가 배수아의 『에세이스트의 책상』(2003)을 데보라 스미스가 번역한 *A Greater Music* (2016)과 배수아의 『올빼미의 없음』(2010)을 스미스가 번역한 *North Station*(2017)을 각각 출판한 미국 로체스터대학교의 문학 번역 전문 출판사 '오픈 레터'(Open Letter)의 편집장 채드 포스트(Chad Post)는 '미국문학번역가협회'(ALTA: American Literary Translators Association)에서 수여하는 '미국번역상'(National Translation Award)의 심사 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문학번역가협회는) 심사 후보로 오른 번역서를 심사 위원들이 번역서이면서도 (독립된) 문학작품으로서 하나의 완전체로 판단하도록 심사 방향을 제시하는데, 특히, 텍스트의 번역은 뛰어나지만 원작의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작품이나, 원작의 구성은 뛰어나지만 한줄한줄

직역으로 인해 번역의 문제가 발생하는 작품은 수상작이 되기 어렵다.”(Kellman, 4)<sup>1)</sup>고 밝히면서, 번역 텍스트가 번역이면서도 동시에 영어로 쓰인 하나의 독립된 문학작품으로 읽힐 수 있는 번역의 유기적 완결성을 강조한다. 번역의 총체성은 결국 번역 텍스트가 원본 텍스트와는 독립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내적 완성도와 번역 텍스트만의 탄탄한 서사적 구성과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점이 번역 텍스트가 원본 텍스트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일종의 완충지대(buffer zone)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번역 비평에서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 같은 번역의 완충지대 없이 원본 텍스트에만 절대적으로 충실한 번역은 번역 독자들과 효과적인 소통을 거둘 수 없다는 전제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같은 번역의 완충지대가 분명 번역 독자들과의 소통을 조율하고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국내에서 일부 학자들과 언론으로부터 신랄한 오역 비판을 받았던 스미스의 *The Vegetarian* 번역을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의 수상 작품으로 선정했던 위원회 심사 위원장이면서 영국 유수의 신문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지의 문학섹션 편집장(1996~2013년)이었던 보이드 톤킨(Boyd Tonkin) 위원장의 심사평은 이 같은 완충지대가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한강의 한국 소설 『채식주의자』를 데보라 스미스가 번역한 *The Vegetarian*은 잊지 못할 정도로 강렬하며 독창적인 소설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작으로서의 가치가 넘쳐흐르는 작품이다. 심사 위원회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1차 후보작을 선정한 다음, 최고의 번역으로 완성된 6편의 뛰어난 2차 후보작을 선택한 후, 심사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The Vegetarian*을 올해의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세 가지의 다른 시각으로 펼쳐지는 이 소설은 간결하고, 독자들과의 마음을 계속 흔들면서도, 멋지게 짜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가정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을 엮매는 모든 관습과 규범을 거부하는 어느 평범한 여주인공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간다. 서정적이면서도 고통스러운 문체를 통해, 소설은 관습과 규범에 맞서는 이 중요한 선택이 여주인공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드러내고 있다. 치밀하게 구성되고, 매우 정교하며, 또 한편으로는 충격적인 이 소설은 독자들의 내면에서만 아니라 꿈속에서까지 오랫동안 큰 여운을 남길 것이다.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완벽한 판단으로 완성된 번역은 페이지 구석구석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원작의 아름다움과 공포의 조화를 담아내고 있다.”<sup>2)</sup>

1) “The jury is encouraged to consider the (translation) book as a whole—both on its own terms and as a work in translation. A book that is very well translated but with a deeply flawed plot won’t end up winning; neither will a book that’s really good but filled with issues on a line-by-line basis that could’ve been addressed in the translation.”

2) “*The Vegetarian* by Han Kang, 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Deborah Smith, is an unforgettably powerful and original novel that richly deserves to win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2016. After our selection of a diverse and distinguished longlist, and a shortlist of six truly outstanding novels in first-rate translations, the judges unanimously chose *The Vegetarian* as our winner. Told in three voices, from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this concise, unsettling and beautifully composed story traces an ordinary woman’s rejection of all the conventions and assumptions that bind her to her home, family and society. In a style both lyrical and lacerating, it reveals the impact of this great refusal both on the heroine herself and on those around her. This compact, exquisite and disturbing book will linger long in the minds, and maybe the dreams, of its readers.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심사 위원장 톤킨과 다른 심사 위원들이 한국어 원본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수상작인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본이 한강의 작품 세계를 이 정도 깊이의 감동과 충격으로 해외 심사 위원들과 독자들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세계문학이 한강이라는 한국 작가의 가치를 발견하고, 한국문학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평가들과 독자들이 한강의 새로운 작품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들었다면,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은, 결코 출판되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번역이라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며,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의 주인공은 한강이 아니라 한국어도 제대로 못 배운 영국 사람 데보라 스미스라고 비아냥거렸던 비평가들의 비평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고민하게 된다. 가치의 균형감과 공감을 잃어버린 비난을 위한 비난은, 비평의 자유라는 이름 속으로 숨어들기에는 자칫 편견과 혐오만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분명 경계해야 한다.

문학번역가의 과제와 번역의 완충지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세계적인 작가들의 번역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소설의 영어 번역과 관련한 불필요한 생략과 오역 논란에 대처하는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Murakami Haruki)의 입장은 명확하다. 잡지 「뉴요커」(*The New Yorker*)와의 인터뷰에서 하루키는 “나의 작품들은 원래 발표된 일본어로 존재한다. 일본어판이 바로 내가 직접 쓴 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할 따름이다.”(My books exist in their original Japanese. That’s what’s most important because that’s how I wrote them.)(Kelts, *The New Yorker*, 2013)라고 말하면서 일본어 원본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 사이의 고유한 공간, 즉 완충지대를 인정하고, 작가가 서 있는 곳은 일본어 원본이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같은 ‘완충지대’에 대한 하루키의 인식은 특히 하루키 자신이 미국 현대 소설가 F. 스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 레이먼드 카버(Raymond Carver), 트루먼 카포티(Truman Capote) 등의 열렬한 팬이면서 그들의 소설을 일본어로 번역했던 번역가라는 경험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키 작품의 영어 번역이 세계적인 관심과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초기에는 하루키 작품의 영어 번역 관련 생략, 오역 등에 대한 다양한 논란도 발생했지만, 결국 번역가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하루키의 인식과 믿음이 결국 하루키 작품의 영어 번역가들과의 존중과 협력의 관계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었고, 더 많은 영어권 학자들이 하루키와 동시대 일본 작가들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번역에 도전하게 만드는 발판이 되었다.

<표 1>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 소설의 영어 번역 현황

영어 번역서 제목	영어 번역가	영어 번역 출판 연도	한국어 번역서 제목
<i>A Wild Sheep Chase</i>	알프레드 번바움	1989	『양을 쫓는 모험』
<i>Norwegian Wood</i>	알프레드 번바움, 제이 루빈	1989, 2000	『상실의 시대』
<i>Hard-Boiled Wonderland and the End of the World</i>	알프레드 번바움	1991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i>The Wind-Up Bird Chronicle</i>	제이 루빈	1997	『태엽 감는 새 연대기』

Deborah Smith’s perfectly judged translation matches its uncanny blend of beauty and horror at every turn.” The Booker Prizes homepage, 2016.

<i>South of the Border, West of the Sun</i>	필립 가브리엘	1999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
<i>Sputnik Sweetheart</i>	필립 가브리엘	2001	『스푸트니크의 연인』
<i>Kafka on the Shore</i>	필립 가브리엘	2005	『해변의 카프카』
1Q84	제이 루빈, 필립 가브리엘	2011	『1Q84』
<i>Killing Commendatore</i>	필립 가브리엘	2018	『기사단장 죽이기』

하루키 작품의 대표적인 영어 번역가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번역가인 1세대 번역가 알프레드 번바움(Alfred Birnbaum, 1955~)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후 와세다대학 국제학부의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40년 가까이 프리랜서 일본 문학 영어 번역가로 활동했으며, 비슷한 1세대 번역가인 제이 루빈(Jay Rubin, 1941~)은 미국에서 태어나 시카고대학에서 일본 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08년까지 워싱턴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일본 문학 교수로 재직하며 일본 문학의 영어 번역가로 활동했다. 2세대 번역가인 필립 가브리엘(J. Philip Gabriel, 1953~)은 미국 출신으로 코넬대학교에서 일본 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애리조나대학교 일본 문학 교수로 재직하며, 특히 2000년 이후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의 대부분을 번역한 영어 번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이형진, 2009:235). 하루키 대표 작품의 영어 번역가 중에는 일본인 번역가는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루키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즐기고, 영어로 하루키 팬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일본 독자나 일본 비평가가 아니라 그들이고 그들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 5. 나가는 말

오늘날 전 세계에서 K-팝에 열광하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매일 저녁 K-드라마의 본방 사수 시청자가 되어버린 수많은 한류 팬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방식과 과정은 우리나라 대학의 한국어교육학과에서 가르치는 한국어교육방법론의 이론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그들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의 한국어 역량을 폄하하거나 한국 사람보다 한국어를 못한다고 비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언어만큼이나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와 나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기반하는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애정과 열정을 우리가 감사하고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존중만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부족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보다 더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키워내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가 한국문학 영어 번역가의 책무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한국문학을 번역하는 것이 마치 우리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고 훼손하는 것이라는 피해의식이나, 조금이라도 어색하거나 정확하지 않는 그들의 번역이 혹시라도 그 번역을 읽을 영어권 독자들에게 큰 결례라도 범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만큼 근거 없는 무의식적 열등감 같은 것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마치 셰익스피어 작품의 한국어 번역을 영국 대학의 영문학이나 한국문학 학자들이 번역 논란이나 오역 문제로 시비를 걸거나 관여하지 않듯이,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을 그 영어 번역을 전혀 읽을 필요도 없는 한국의 한국문

학이나 영문학 학자들이 오역 시비를 걸거나 번역에 대해 끊임없이 최종 가치판단을 하려는 시도의 모순과 역설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의 진정한 수요자이면서도 주체가 되어야 할 그들이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그들 방식대로 좋아하고 즐기면서 자가발전 할 수 있도록 놓아두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 참고 문헌

- 김자경(2021), 한국문학 번역에서 문학 번역가의 역할: 브루스 풀턴, 주찬 풀턴의 『한 명』 번역 결정부터 *One Left* 출판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2권 2호, 47-77쪽, 한국번역학회.
- 김현미(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윤조원(2011), 번역자의 책무—발터 벤야민과 문화번역, 영어영문학 57권 2호, 217-235쪽, 한국영어영문학회.
- 이형진(2009), 수용 주체로서의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영어번역가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26권, 223-244쪽, 세계문학비교학회.
- \_\_\_\_ (2011),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의 영어 서평에 나타난 문학번역 평가의 관점, 세계문학비교연구 37권, 303-328쪽, 세계문학비교학회.
- "1인치 자막 장벽 뛰어넘으면...'기생충',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JTBC 뉴스, 2020년 1월 6일.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8143](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8143)>
- Kellman, Steven G.(2019), A Conversation with Chad W. Post on Literary Translations in the United States. *Translation Review* 105, no. 1, p. 4.
- Kelts, Roland.(2013), Lost in Translation: Interview with Murakami Haruki. *The New Yorker*, May 9, 2013. <<https://www.newyorker.com/books/page-turner/lost-in-translation>>
- "The Vegetarian wins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2016", The Booker Prizes homepage. <<https://thebookerprizes.com/international/news/vegetarian-wins-man-booker-international-prize-2016>>